



지난 14일 광주시립무용단 연습실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발레 마스터 쿠프리예프 루스탐씨가 '지젤'에서 주연을 맡은 구윤지씨를 지도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변화의 날갯짓 기대해도 좋다

## 우즈벡 출신 발레 마스터 루스탐씨 광주시립무용단원 지도

창단 후 줄곧 광주문화예술회관에 동지를 틀었던 광주시립무용단은 올 초 옛 광주시립미술관 2층으로 이사를 갔다. 예전 공간엔 연습실이 한 곳 밖에 없어 작품 준비에 애를 먹었다. 이전엔 공간에는 소규모 연습실을 또 한곳 마련해 효율적으로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공간에서는, 새로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단원들 기량 향상에 무게 중심을 둔 신순주 신임 예술감독은 입기를 시작하자마자 우즈베키스탄 출신 발레 마스터를 영입했다. 무용단에서 해외 발레 마스터가 지도를 맡게 된 건 10여년만이다.

발레 마스터 쿠프리예프 루스탐(63)씨는 지난 3월 16일부터 발레단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주 5일 하루 3시간씩 단원들을 지도한다. 오전에는 발레 기본 동작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오는 5월(28~29일) 공연 예정인 '지젤'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다. 틈틈이 광주시립교향악단의 '발레와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5월 8일) 무대를 위한 '백조의 호수'도 지도한다.

14일 인터뷰에서 만나 루스탐씨는 배우려는 의지가 강한 단원들을 많이 칭찬했다. 또 함께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단원들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단원들 역시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가르치는 그에게 많은 것을 배운다고 했다.

"나도 젊을 때는 무섭게 가르쳤다. 한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단원들이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하는 게 보인다. 잘 안되면 또 다시 해보려고, 다른 단원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한다. 집중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화를 낼 것이다. 그런데 화 낼 일이 없다. 물론 광주 무용수들이 국립발레단처럼 최고의 무용수는

하루 3시간 기본 동작 다듬고

5월 공연 '지젤' 리허설 진행

단원들 적극적으로 임하니

연기·테크닉 향상 자신 있어요

아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연습하고 연마해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에 적극적이어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내 임무인데 자신 있다."

단원 조성미씨는 "모든 동작들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데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심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게 고맙다"며 "내 춤을 내가 직접 본 적이 없는데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어서 부족한 부분 등을 체크해주며 디테일한 부분까지 잡아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 무용예술학교와 불소이 발레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그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나보에 국립극장, 카사트키나 바실레프 모스크바 클래식 발레단, 모리스 에이프만 발레단 등에서 주역 무용수로 활약했다. 이후 폴란드 로즈 발레단 마스터로 근무했으며 7년 전 한국에 들어와 유니버설발레단, 선화예술고, 고양예술고 등에서 발레 마스터로 활동했다.

"지젤은 아주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발레다. 전세계 모든 극장에 올라가는 교과서적인 작품이다. 춤을 못 추는 사람이 추면 금방 티가 난다. 연기와

테크닉이 모두 갖춰져야 하는 한다. 그걸 소화해 내야 하는데 지금 단원들의 경우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할 가능성이 있다."

루스탐씨는 러시아의 교육 방법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러시아에서는 어릴 때부터 캐릭터 댄스, 발레, 중세무용, 연기 수업을 한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익힌다. 숨쉬는 방법까지도 배운다. 모든 건 학교 때 배우고 전문발레단에 들어가서는 자신이 느끼는 대로 춤을 춘다. 하지만 한국은 발레를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 무대에 서도 클래스를 받는 것과 같은 춤이 나온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 폴란드, 러시아 등 여러 곳에서 가르쳐봤지만 한국 학생들처럼 하고 싶다는 욕망과 집중력이 높은 경우가 없다. 최근 한국 발레가 세계 콩쿠르에서 잇따라 수상하는 데 전혀 놀랍지 않다."

그는 광주 문화예술회관 인근 양산동에 살고 있다. 주말에는 서울에서 생활하며 발레 클래스를 진행한다. 부인 역시 선화예술고에서 발레를 가르치고 있다.

"광주에 와서 딱히 어딜 가본 적은 없다. 집과 발레단, 발레단과 집을 왕복하는 생활이다. 오늘 뭐가 부족했는지, 내일은 뭐 가르쳐야 할지 항상 준비한다. 한국 음식은 아주 좋아한다. 갈비탕, 돼지갈비 등 다 맛있다. 오징어와 낙지는 먹기 좀 어렵더라. (웃음)"

좋아하는 작품으로 '지젤', '레실피드' 등을 꼽은 그는 '지젤'에 무한애정을 표했다.

"드라마적 요소가 강한 작품이라 출연진들이 그 감정을 잘 표현하면 관객들도 알브레히트와 지젤처럼 사랑하게 되고, 슬퍼하며 그 분위기에 빠져게 된다. 광주 무용수들에게서도 그런 감정을 전달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기대해도 좋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문예기금 어떻게 모을까

### 휴먼트리 이선희 대표 20일 강연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0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모금 전문 회사인 (주)휴먼트리 이선희 대표를 초청 '문화예술기관의 후원자 개발을 위한 성공전략'을 주제로 공개 강연한다.

이번 강연은 지난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공포에 따라 문화재단을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단체들의 기부금 모금이 가능해짐에 따라 문화에

술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게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희 대표는 이번 강연에서 후원자 개발 전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공원리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주)휴먼트리는 기부자와 기부를 받을 대상을 연결하고, 다양한 모금 방식을 개발하고자 2009년에 창설된 모금전문회사, 서울시복지재단 등에서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재)희망제작소의 '모금전문가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선착순 30명을 접수받으며,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문의 062-670-7484. /오광록기자 kroh@

## 여성주의와 인문학 조우

### 광주여성재단 21일 무료 강좌

광주여성재단은 여성재단 8층 강의실에서 인문학 강좌 '여성주의와 인문학의 조우'를 진행한다.

올해는 인간의 성과 사랑, 결혼과 죽음을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성찰하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모색한다.

오는 21일 오후 7시 열리는 첫번째 강의에서는

정미라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사랑의 여러가지 색깔들-우리 시대 결혼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나는 누구인가?-여성주의, 마음의 인문학'(허라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6월 16일), '우리가 사랑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문학 작품 속의 삶과 사랑'(이화경 소설가·9월15일), '나의 버킷리스트-노년의 삶 설계'(이경신 '철학하는 일상' 저자·11월 17일) 등이 이어진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비 무료. 문의 062-670-0541~3. /김미은기자 mekim@

손봉채 & 'migrants'



## 보이는 게 진짜인가

신세계갤러리에서 작가의 조형세계를 믹스매치한 전시 'my eye! : 손봉채&이환권'이 열리고 있다.

여러 겹의 투명 폴리카보네이트 위에 그려진 이미지가 겹쳐 하나의 풍경이 되는 손봉채의 입체회화와 실제보다 늘여지고 깃들린 형태를 가진 이환권의 3차원 조각을 함께 선보인다. 익숙한 대상을 해체, 재구성하는 두 작가의 작품은 보는 이들에

## 29일까지 손봉채&이환권전

### 신세계갤러리, 키즈클래스도

게 시각적 환영을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my eye!'(세상에)라는 전시 주제처럼 작품의 재현과 왜곡 사이에서 낯선 경험을 하게 만든다. 이는 작품을 보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훈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프랫인스티튜트에서 석사를 마친 손봉채는 뉴욕에서의 첫 개



이환권 작 'Jae-Min'

인전을 시작으로 서울과 광주, 중국, 독일 등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이환권은 경원대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에서 환경조각을 전공했다. 왜곡된 형태의 3차원적 조각 속에서 시공간을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시는 29일까지다. 오는 18~19일, 25~26일에는 키즈아트클래스 '알쏭달쏭 시각놀이'가 진행된다. 문의 062-360-127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 대전망과 서,남해안 미래가치 분석

### 서,남해안 부동산 투자

- 전남도청2차(오룡지구)
- 해남 산이면 위락도시(솔라시도)
- 해남 화원면 대우해양조선

투자가치 판단과 미래분석

## ?

궁금하세요?  
정말 궁금하세요?  
■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재테크 상담소**

상담전화 ☎(062)576-7955

※ 현지 실전전문가 무료상담

### 이태리가구

### 명품소파

### 던롭침대

### 가구빌딩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